

Coming Soon! – The Sultan and the Saint Docudrama Film

개봉박두! – 술탄과 성인 다큐드라마 영화

유니티 푸로덕션 재단, PBS 제작자, 는 60 분 다큐드라마 영화로 술탄 Malikal-Kamil 과 아시시의 성인 프란치스코 두사람의 만남으로, 십자군 전쟁으로 잘 알려진 기독교-이슬람 갈등의 기간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재연하는 영화를 제작 진행중이다.

“이영화는 두사람의 신념에 관한것으로 한사람은 크리스찬 순회설교자고, 또 한사람은 이슬람 제국의 통치자.” 라고 감독 알렉스 크로네멀 (Alex Kronemer)이 말했으며, “백년이넘는 오랜동안의 전쟁에 서로반대하고, 불신과 교활한 선전안에서 상호존중과 공통점을 찾으려고 시도 한 영화다. 현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폭력은 역사의 계속이라 하겠다.”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방법으로 십자군 전쟁에 대해 알고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아는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 십자군 전쟁은 비인간적으로 인간의 근본을 파괴하고 폭력과 위협으로 인간의 마음을 위협했다.
- 그 결과로 4 대에 걸쳐 갈등이 확산되었고 이슬람교 뿐만아니라 유대교, 동방정교회 기독교인과 결국에는 다른 유럽으로 이어졌다.
- 그리고 그것은 끝이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당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사태의 악화와 종말을 당할지도 모르는 용감한 위험을 감행해서 평화를 맺기위해 술탄을 만나러 적의 선을 넘었다. 가정하자면 술탄은 잔인하고 악마적인 적이어야 했는데 오히려 전쟁 역사상 가장 인간적인 행위로 자신이 미워하는 십자군 50,000 명을 기아로부터 구해주었다. 당시 십자군은 나일강의 홍수에 갇혀있는 상태였었다.
- 마지막으로, 적게 알려진 이 두사람 사이의 만남이 갈등의 독을 빨아들여 궁극적으로 끝없이 보이는 전쟁이 종식되도록 도왔다.

이영화는 대규모의 재연과 시각효과 및 해설학자 마이클 쿠사토 신부(Fr. Michael Cusato)를 포함하여 성 보나벤투라 대학, 캐티 워랜 수녀, 술탄과 프란치스코의 발자취, 슬레이맨 모라드, 스미스 대학 및 그외 다수 포함되었다.

UPF 는 영화를 완성하기위한 자금을 찾고 있으며 2016 년 11 월에 영화를 출시할 계획이다. 그들 자신의 이름이 영화 크레딧에 나올수있는 기회가 그룹 혹은 개인에게 가능하다. 이 기회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Jawaad Abdul Rahman, jar@upf.tv 에 연락하기 바란다.

당신이 사는 도시에서 이 영화를 보기위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sultanandthesaintfilm.com